

잘 나가는 삼성가전...활기 도는 광주공장

액티브워시 세탁기 9개월만에 국내 판매 20만대 2도어 냉장고 매출 전년비 2배 ↑ ... 추가생산 늘려

삼성전자의 혁신적인 기술력과 사용자 배려한 생활가전 제품들이 뛰어난 판매성과를 기록하며 선전하고 있다. 이 에따라 백색가전의 주 생산기지인 광주 공장도 활기를 띠고 있다.

25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미온수에 에벌레 기능을 강화한 삼성 '액티브워시' 세탁기는 37주간 국내 판매 20만대를 돌파했다. 하루 평균 772대가 팔리나간 셈이다.

지난 2월 국내 출시를 시작으로 북미·중남미·아시아·중동·아프리카 등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액티브워시는 지난 주 전 세계적으로 100만대 판매를 달성하기도 했다.

액티브워시는 광주공장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올 1월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 2015'에서 최초로 공개된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생활가전 전략제품으로 빨래판 일체형 세탁조 커버인 '빌트인 싱크'와 전용 급수 시스템인 '워터렛'을 적용해 에벌레부터 본 세탁까지 한번에 끝낼 수 있는 세탁기다. 삼성전자는 최근 미온수 '워터렛'을 적용한 2016년형 제품을 출시하며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삼성전자 냉장 하냉동 2도어 냉장고(BMF : Bottom Mount Freezer)도 지난 3분기 월 평균 판매량 5000대를 기록했다. 작년 동기 대비 약 2배 이상 판매가 증가했으며, 올해 9월까지의 누적 판매량도 작년 동기 대비 170% 증가했다.

지난 7월 이탈리아 소비자 전문 잡지인 '알트로컨슈머'는 삼성전자 냉장 하냉동 2도어 냉장고를 우수한 에너지 효율과 낮은 소음 등을 높게 평가해 1위로 선정한 바 있다.

또 네덜란드 유력 소비자 전문지 '컨슈메텐본드'는 삼성전자 냉장 하냉동 2도어 냉장고를 1위와 2위로 평가하고 1위인 제품은 '베스트 테스트'로 선정했다.

이 밖에도 삼성 '버블샷 애드워시' 드럼세탁기는 지난 9월 출시 이후 약 6주 만에 국내 판매 1만대를 돌파했다.

삼성 버블샷 애드워시는 세계 최초로 도어에 작은 창문인 '에드워드오'를 채용해 세탁·헹굼·탈수 등을 할 때 언제든지 세탁물을 간편하게 추가할 수 있어 세탁 중 세탁물을 추가하기 어려웠던 기존 드럼세탁기의 불편함을 해소했다.

지난 9월 출시한 삼성 '지펠아삭' 김치냉장고는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인 10월 첫째 주에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 판매가 증가하며 김장을 준비하는 고객들에게 인기몰이 중이다.

삼성 '파워봇' 로봇청소기는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 동안 국내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2배 이상(121%) 증가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삼성전자 모델이 '제46회 한국전자산업대전(2015 KES)'에서 출시 9개월 만에 글로벌 판매 100만대를 돌파한 '액티브워시'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생활가전 전략 제품 액티브워시는 하루 평균 772대가 팔리나갈 정도로 잘나가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그는 또 "삼성전자의 최첨단 기술력이 집약된 프리미엄 생활가전 제품들이 제품의 혁신성과 '코리아 그랜드 세일' 등의 행사로 늘어난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제품과 혜택으로 소비자의 성원에 보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금호산업 인수자금조달계획서 마감 연장

채권단, 박삼구 회장 타이어 지분 담보권 해지 검토

10월 23일 → 11월 6일로

박삼구 금호그룹 회장의 금호산업 인수 자금조달계획서 마감 기한이 10월 23일에서 11월 6일로 연장됐다.

금호산업 채권단은 금호산업 주채권은 행인 산업은행이 조만간 모든 금호산업 채권기관들에 인수자금조달계획서 마감 기한 연장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채권단은 당초 23일까지 박 회장이 금호산업 인수자금조달계획서를 내면 이를 검토한 뒤 12월31일까지 매각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채권단은 박삼구 회장 인수자금조달 계획 마감시한을 11월 6일로 연장한 것과 관련, 박 회장이 지난 16일 금호산업 인수 자금 조달을 위해 본인이 보유한 금호타이어 지분의 담보권 해지를 채권단에 요청한 게 주된 요인이라고 밝혔다. 주요 채권단은 금호타이어 담보권 해지를 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금호산업 인수 자금조달 계획서 마감 시한도 연장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채권단 한 관계자는 "채권단이 박삼구 회장의 금호타이어 보유 지분 담보권 해지 검토를 끝내지 않으면 박 회장은 사실

상 인수자금 전략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채권단은 박 회장이 제출한 금호산업 인수자금조달 계획서를 매각원칙, 법적 요건 등을 바탕으로 검토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자금조달 과정에서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박 회장과 계약한 금호산업 주식매매계약(SPA)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채권단은 앞서 9월 24일 박 회장에 금호산업 지분 50%+1주를 722억원에 매각했다. 박 회장의 남은 과제는 인수자금 마련인데, 현재 박 회장은 금호타이어 보유 지분 매각, 은행권 인수금융, 전략적 투자자 모집 등으로 자금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과 박세창 금호타이어 부사장 등 우호세력이 보유한 금호타이어 지분은 8.06%로, 이를 모두 매각할 경우 약 15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또 전략적 투자자 지원을 통해 3000억원가량을 마련한 뒤 총 4500억원을 신설 SPC(특수목적법인)에 투자할 방침이다. 신설 SPC는 향후 금호그룹의 지주회사 임무를 수행한다. 나머지 자금은 은행권 인수금융으로 총당한다. /김대성기자 bigkim@

주류업계 "빈병 보증금 인상안 철회하라"

"술값 10% 이상 인상 불가피... 소비자 부담만 가중"

환경부가 지난달 3일 입법예고한 빈병 보증금 인상안에 대해 주류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빈병을 사재기해두는 현상 때문에 지난 달 빈병 회수율이 81%까지 떨어지(작년 9월 96%) 빈병 부족으로 생산라인을 중단하는 업체도 생겨나고 있다.

주류업계는 인상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그대로 실행되면 주류 가격이 10% 이상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환경부가 지난달 3일 입법예고한 인상안에 따르면 내년 1월21일부터 소주병의 빈병 보증금이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2.5배, 2.6배 오른다.

협회는 "취급수수료와 보증금 인상 부분이 반영되고 그에 대한 주세, 부가세가 붙으면 소주는 출고가 기준으로 100원 가까이 인상될 수 있다"며 "소주 출고가가 961.7원인 것을 고려하면 가격이 10% 정도 상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불경기에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줄어 업체들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로또복권 (제673회)		2등보너스 숫자				
당첨 번호						
7	10	17	29	33	44	5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491,453,300	10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일치	71,021,586	35			
3	5개 숫자일치	1,333,560	1,864			
4	4개 숫자일치	50,000	88,838			
5	3개 숫자일치	5,000	1,450,769			

역주행 '대출 가산금리'

기준금리 1%p 내렸는데 0.33%p 올라

지난 2년간 한국은행이 4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포인트나 내렸음에도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는 0.33%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17개 국내 주요 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조사한 결과, 8월 말 현재 평균 금리는 2.98%였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2013년 6월 말 3.82%에서 2년 사이 0.84%포인트 내렸다. 같은 기간 한국은행이 인하한

기준금리 폭(1.0%포인트)보다 작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13년 5월 2.5%에서 올해 역대 최저수준인 1.5%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시중은행 가운데 같은 기간에 대출 금리를 1%포인트 이상 내린 곳은 수협·우리·전북은행과 통합 전 외환은행 등 4곳에 불과했고, 나머지 13곳은 1%포인트 이하의 인하폭만을 기록했다.

은행들이 한국은행에 맞춰 기준금리는 내리는 대신 가산금리를 올려 실질 금리 인하폭을 축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대출 신입 초임 월 291만원

전년비 4.5% 늘어

올해 4년제 대출 신입사원 초임은 상여금 포함 월 290만9000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의 278만4000원보다 4.5% 증가한 금액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414개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2015년 임금조정 실태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25일 경총에 따르면 4년제 대출 신입사원 초임을 기업 규모별로 보면 100~299인 256만1000원, 300~499인 279만5000원, 500~999인 294만1000원, 1000인 이상 318만6000원이었다. /연합뉴스

산업별로는 건설업 270만6000원, 도매 및 소매업 275만5000원, 제조업 280만2000원, 운수창고 및 통신업 294만원, 금융 및 보험업 328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전문대졸은 258만4000원, 고졸 사무원과 고졸 생산직은 각각 213만원과 230만8000원으로 조사됐다.

직급별 초임급은 부장 640만5000원, 차장 547만9000원, 과장 481만6000원, 대리 392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임금협상이 타결된 기업 평균 임금인상률(통상임금 기준)은 5.0%로 통상임금 산입범위 조정이 있었던 작년(8.2%)보다 3.2% 포인트 하락했다. /연합뉴스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출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 회원	재혼
<p>의사, 변호사, 의사, 한의사 27~45세</p> <p>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p> <p>상성, 현대, LG 직원 28~47세</p> <p>은행권, 연구원 29~49세</p> <p>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p> <p>사업가, 자영업 29~39세</p> <p>세무사, 연구원 29~48세</p> <p>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p> <p>교사, 교수 28~49세</p>	<p>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p> <p>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p> <p>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p> <p>의사, 약사, 교사 25~39세</p> <p>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p> <p>간호사, 은행원 26~47세</p> <p>학원(음악)원장, 교사 27~42세</p> <p>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p> <p>미스코리아, 미스전복 27~36세</p>	<p>의사, 변호사 32~65세</p> <p>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p> <p>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p> <p>대기업 간부 36~59세</p> <p>회사원, 자영업 33~67세</p> <p>'무술산 여성' 희망 31~58세</p> <p>VIP 희망 여성 29~53세</p> <p>학원(음악)원장, 교사 27~63세</p> <p>공무원, 교사 32~68세</p> <p>간호사, 회사원 29~48세</p> <p>자영업, 교사 35~64세</p> <p>'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p>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하이랜드 B10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산수옥면가
41년 모밀장인 이재성 대가
광주·전남 가맹점 대모집
최고의 마진
최소의 창업비용
최소의 인건비
"산수옥면가"입니다!!
산수옥면가에서 제공하는 육수와 소스는 41년 노하우를 통해 한국인의 입맛에 가장 알맞게 개발된 제품으로서 전문 주방장 없이 초보자도 쉽게 조리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 줄서서 먹는 대학집 운영 중입니다. 현재 각학점, 학동점 성업중!!
가맹점 문의 산수옥면가 H. 010-2018-2005, T. 080-358-5000